

## “전문 캐디와 라운딩하면 나도 싱글”

### ■ 함평다이너스티CC 명문골프장 자리매김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에는 골프 전문 지식을 갖춘 캐디가 많아요.”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인 에이스 회원권이 운영하는 에이스골프닷컴에서 지난 10·11월 두 달간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일부가 설문 외에 골프장에서 느낀 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설문은 전국 417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전체 응답자는 1천880명이다. 비록 설문 외의 개인적인 소감을 밝힌 것이지만 전국 주요 골프장 중에서도 전남에 소재하는 함평다이너스티에 대한 캐디들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김진철 전남과학대 골프·프로캐디학과 교수는 “전문 캐디 공인 자격증은 따로 없지만 티칭프로나 세미프로 자격증 소지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 몇가지의 조건을 갖추면 충분히 전문 캐디라고 부를 수 있다”면서 “우선 골프 룰이나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초보자들에게 최소한 원포인트 레슨이 가능한 골프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골프장 코스 공략법을 정확히 숙지해 내장객들에게 조언 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전문캐디의 조건에 대해 밝혔다.

현재 함평다이너스티에는 캐디교육생 12명을 제외하면 총 89명(남자 21명·여자 68명)의 캐디가 있다. 이들 중 싱글 수준의 실력자가 25명, 80~90타 수준이 30여명에 달한다. 특히 이들 중 티칭프로 자격을 갖춘 캐디는 2명이다.

그리고 30여명은 프로 지망생들로 꾸준히 실력 연마에

### 캐디 대부분 싱글수준에 티칭 프로 거리에 퍼팅에 원포인트 레슨까지 이용객들 베스트 서비스에 ‘굿 샷’

노력하고 있다.

함평다이너스티 캐디들의 수준 향상은 꾸준한 교육에서도 비롯된다.

이들은 매주 3일씩 하루 2시간30분 동안 골프장 내 연습장에서 골프 실무교육을 받는다. 라운딩 중 이용객들에게 친절하고 자신있게 조언해 줄 정도의 기량을 쌓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본적인 이론은 교육생 시절 마스터 한다. 매년 10월과 1월 두차례 캐디교육생을 모집하는 함평다이너스티는 3개월간 룰·용어·코스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 자격미달자는 과감하게 탈락시킨다. 세미프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제한 경기팀장은 “지금껏 최종 선발되는 인원은 교육인원의 3분의 1수준으로 최정예 요원이라 할 수 있다”면서 “이들은 이후 함평다이너스티의 최대의 자랑거리인 양잔다에서의 샷 요령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고 밝혔다.

함평다이너스티 남자캐디인 장명호씨는 여성 골퍼들에

게 인기가 높다. 캐디 경력 3년차인 장명호씨는 골프실력 90대 후반인 여성회원 4명을 불과 5개월새 80대 중반의 실력으로 끌어올렸다. 장명호씨의 조언을 듣고 눈부신 기량(?)을 발휘해온 이들 회원들은 라운딩 때마다 그를 찾은 것이다. 장명호 캐디의 명성이 입소문을 타 이제에는 다른 여성회원들까지도 그를 찾은 만큼 인기 상승가를 누리고 있다.

장명호 캐디는 “골프장에서 배운 이론 교육과 코스공략에 대한 실전 연습 등을 통해 익힌 노하우를 회원들에게 성실하게 전했던게 주요했던 것 같다”고 인기 비결을 밝히면서 “우리 골프장에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캐디들이 많은 만큼 이용객들의 즐거운 라운딩과 기량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론과 실무로 무장된 캐디들은 친절교육도 철저히 받는다. 5개조로 나뉘어진 함평다이너스티 캐디들은 매일 오전 첫 조부터 구호를 외친다. 구호는 ‘인사는 내가 먼저, 자연스럽게, 자신있고 뚜렷하게’ 그리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다.

김진희(39) 캐디마스터는 “웃는 얼굴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매일 프로다운 캐디로 거듭나고 있다”고 자신한다.

‘전문 캐디가 많은 함평다이너스티골프장’ 좋은 시설과 양잔다 코스 등이 어우러져 명실상부한 명문골프장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함평다이너스티 CC는 지난 14일 사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1년동안 회원과 골프장 관리에 힘쓴 직원들을 격려 했다.

## 나지완 역대 연봉 쫓다

3,800만원→1억원

입단 3년만에 개가

2009 한국시리즈 MVP 나지완(사진)이 역대 연봉을 쫓아올렸다.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나지완이 27일 3천800만원에서 6천200만원(163.2%)인상된 1억원에 연봉 계약을 마무리 했다. 올 시즌 128경기에 출장해 0.263의 타율로 23홈런 73타점을 기록한 나지완은 2008년 입단 이후 3년 만에 역대 연봉자 대열에 합류했다.

포항에서 2010시즌을 위한 담금질을 하고 있는 나지완은 “올 시즌 우승팀으로 일정이 많아 동계훈련이 늦은 편이지만 훈련에 집중해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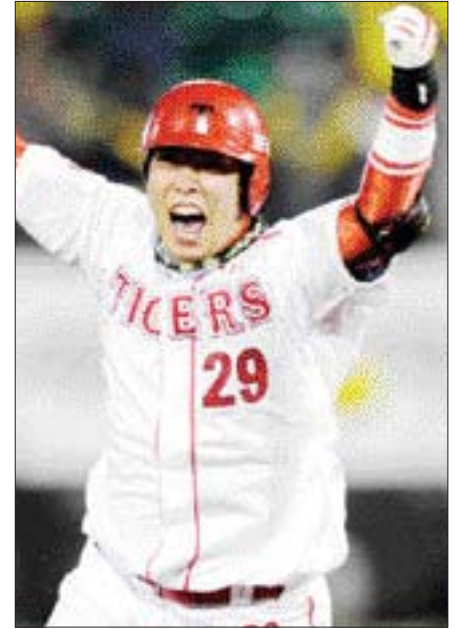
나지완은 슴막하게 전개된 2009 한국시리즈 7차전에 KIA의 10번째 우승을 알리는 3타점 홈런을 쏘아올리며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빛나는 발이 됐지만 올 시즌이 만족스럽지만은 않다.

지난 겨울 포항에서 자체캠프를 차리고 열성을 다했지만 출발이 좋지 못했다. 피나는 훈련으로 얻은 자신감이 오히려 독이 됐다. 기대했던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슬럼프에 빠졌던 나지완은 무릎부상까지 겹치면서 시즌 초반 속앓이를 했다.

지난해에도 팀 사상 처음으로 신인으로서 개막전 4번 타자를 맡으며 화려한 출발을 했지만 높은 프로의 벽에 막혀 2군을 오가는 등 초반 모습이 좋지 못했다.

‘유망주’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는 것을 목표로 2009시즌을 달렸던 나지완은 이번에는 ‘슬로우스타터’라는 수식어를 떼어내기 위해 밤을 흘리고 있다.

꾸준한 모습으로 한 시즌을 보내는 게 나지완의 바람이다. 목표도 올 시즌 기록보다



상향조성했다.

나지완은 “타점에 우선 욕심을 내고 싶다”며 “90타점 이상을 목표로 세웠고 타율도 0.280대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올 시즌 23개의 홈런을 때려냈던 나지완은 내년 시즌에는 30홈런에 도전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약점으로 꼽히는 수비력을 강화해 ‘반쪽’선수에서 탈피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캠프에서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수비력 강화를 위한 첫 단계다.

나지완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운동하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수비연습을 하기 위해서 살을 빼고 있다”며 “캠프에 들어온 뒤 6kg를 감량했다”고 말했다.

한편 KIA는 2010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56명중 47명과 재계약을 마쳐 83.9%의 재계약율을 보이고 있다. 미계약 선수는 이대진·유동훈·서재웅(이상 투수), 김중국·최희섭·김상현·이현근(이상 내야수), 이종범·김원섭(이상 외야수) 등 9명이다.

/김여용기자 wool@kwangju.co.kr

## 이청용 평점 7 “마법을 노렸지만...”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실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이청용(21·볼턴·사진)이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쌓는 데 실패했다.

이청용은 2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랭커셔주 번리의 터프 무어 스타디움에서 끝난 번리와 2009-2010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72분을 뛰고 1-1로 맞선 후반 27분 리카르도 가드너와 교체됐다.

지난 13일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도움을 기록한 데 이어 16일 웨스트햄과 홈 경기에서 선제골(시즌 3호골)을 뽑아 볼턴의 3-1 승리를 이끌었던 이청용은 비록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풀타임을 뛰었던 앞선 세 경기에 이어 리그 4경기 연속 선발전에 포함되면서 볼턴의 주축 선수로서 입지를 굳혀갔다.

이청용은 4-4-2 포메이션의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전반 10분부터는 매튜 테일러와 자리를 바꿔 잠시 원래 포지션인 오른쪽 미드필더로 뛰기도 했지만 대부분 왼쪽에서 공격의 물꼬를 트는 임무를 맡았다.

전반 21분 번리 미드필더 오른쪽에서 개인기로 수비를 따돌리고 나서 패스를 내준



이청용은 아직 정면에서 날린 타미르 코헨의 인발슛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 도움 기회를 놓쳤다. 이청용은 전반 추가 시간 아직 정면에서 직접 오른발 프리킥도 했지만, 골문 위를 훌쩍 벗어나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볼턴은 결국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을 나누게 됐다.

영국 스포츠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는 이청용에 대해 “마법을 노렸지만 힘에 부쳤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선제골을 터트린 테일러(평점 8)에 이어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평점 7점을 줬다.

한편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린 수비형 미드필더 조원희(26·위건 애슬레틱)는 블랙번 로버스와 홈 경기에 교체 선수로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출전 기회는 얻지 못했다. /연합스

## 양용은, 올해 스포츠계 10대 승자에

## 우즈, 2000년대 스포츠뉴스 메이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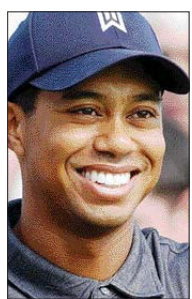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를 꺾고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한국 남자골프선수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사진)이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 선정한 올해 스포츠계 최고의 승리자 10명에 포함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주말판 매거진 ‘퍼레이드’를 통해 신기록 수립, 잊을 수 없는 명승부, 주목받지 못하던 무명 선수의 놀라운 승리 등을 간추려 올해 스포츠 부문 10

대 승리자를 꼽으면서 양용은의 이름을 올렸다.

이 잡지는 양용은이 PGA투어 출전 자격을 힘들게 따낸지 8개월 만에 메이저대회에서 우즈와 맞붙어, 최종라운드 18번째 홀에서 그린으로부터 207야드 떨어진 러프에서 친 공을 핀에 바짝 붙여 승부를 결정짓는 버디를 낚아내는 장면을 소개했다.

특히 메이저대회에서 최종라운드 직전까지 선두를 유지했을 경우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던 우즈의 불패 신화를 처음으로 깬 것이 바로 양용은이었다고 이 잡지는 설명했다. /연합스



이지에 2000년대 10대 스포츠뉴스를 선정, 발표했는데 1위로 ‘타이거 우즈’를 올려놨다.

이 신문은 “10년간 메이저 대회에서 12번이나 우승한 우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2000년대를 장식한 최고의 뉴스메이커로 선정됐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27일(한국시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2000년대 스포츠뉴스를 선정, 발표했는데 1위로 ‘타이거 우즈’를 올려놨다.

이 신문은 “10년간 메이저 대회에서 12번이나 우승한 우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선수”라며 “무릎 부상에도 2008년 US오픈을 제패한 것은 그의 우승 경력의 하이라이트로 남을 것이다. 최근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그의 골프 실력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펠프스(미국)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를 따낸 것이 2위에 올랐고 매리언 존스, 로저 클레멘스 등 스포츠계에서 불거진 스테로이드 복용 파문이 3위에 자리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보스턴 레드삭스가 2004년 정상에 오른 뉴스가 네 번째로 큰 것으로 평가됐다. /연합스

기간: 2009.12.20 ~ 2010.02.28

**100% 상품가능**

(주)우동권광여행사

전화: 062-383-9042

### 제주여행 이지 할인 받고 가자!!

1. 제주여행 패키지 (4박5일)	2. 제주여행 패키지 (3박4일)	3. 제주여행 패키지 (2박3일)
20% 할인	20% 할인	20% 할인
4. 제주여행 패키지 (1박2일)	5. 제주여행 패키지 (1박1일)	6. 제주여행 패키지 (1박0일)
20% 할인	20% 할인	20% 할인

www.jeju.com (제주도관광공사)